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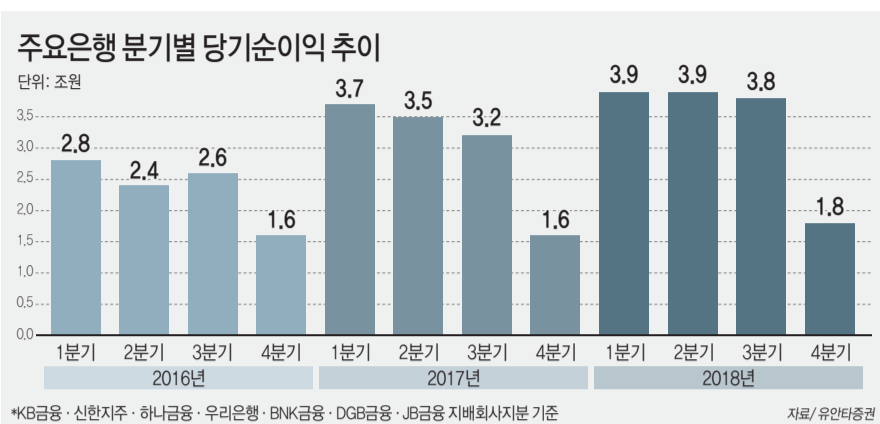
은행권, 사상 최대실적에 '역대급 배당 잔치' 예고

하나·JB금융 작년 순이익 최대치
하나, 주당1500원 기말현금배당
JB금융도 180원 깜짝 배당 결정

KB·신한지주도 실적 발표 앞뒤
실적따라 배당 성향 확대 예상

J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은행권 실적발표가 시작됐다. 명절 연휴 이후에는 오는 8일 KB금융지주가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며, 11일에는 우리은행·IBK기업은행·DGB금융지주가, 12일에는 신한금융지주·BNK금융지주가 실적표를 공개한다.

출발은 좋다. 지난해 4분기는 부진했지만 JB금융과 하나금융 모두 지난해 연간 기준 순이익이 2017년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배당도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연말이면 의례적으로 나왔던 금융



당국의 고배당 자체발언이 잠잠한 사이 배당성향을 높인 '깜짝' 배당이 이뤄졌다.

◆ 사상 최대 실적 행진

하나금융은 지난해 순이익이 2조2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2년 연속 2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2005년 12월 지주 설립 이후 최고의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JB금융도 지난해 순이익이 2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1.4% 늘었다. 역시 사상 최대치다.

'리딩뱅크' 경쟁으로 은행권 실적시즌마다 이목이 집중되는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지난해 순이익이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3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됐다. 신한지주 순이익 추정치는 3조1000억원 안팎으로 3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리딩뱅크 경쟁은 올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1분기부터 신한지주 연결 실적에 오렌지라이프(지분율 59.15%)가 반영된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시아신탁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 배당도 사상 최대 예상

좋은 실적만큼 배당도 풍성하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몇 년새 은행들의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배당성향을 그대로만 유지해도 배당금이 많아지는 데 주주친화정책에 배당성향까지 줄줄이 높이면서 사상 최대 배당잔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주당 1500원의 기말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중간배당 400원을 포함하면 2018년 배당금은 총 1900원이다. 전년 1550원보다 늘어난 사상 최대치다. 배당성향은 25.4%로 전년 대비 2.9%포인트 높다.

JB금융 역시 깜짝 배당 계획을 내놨다. JB금융은 보통주 1주당 180원, 총 350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14.4%로 전년 대비 6.1%포인트나 높아졌다. 다른 금융지주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는 배당성향을 2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고, 신임 회장이 주주친화정책을 적극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둔 은행들도 배당성향을 확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배당성향은 우리은행이 26.7%로 가장 높고, KB금융과 신한금융은 각각 23.2%, 신한금융 23.8%였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삼성증권 고액자산가 올해 투자 유망자산 해외채권 최다 선호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투자 유망자산으로 해외채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자산 1억원 이상 보유 고객 10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투자 유망자산으로 해외채권을 뽑은 응답자가 40.1%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그다음으로 미국주식(17.1%), 원자재(16.1%), 이머징주식(12.9%), 국내주식(9.7%) 등의 순이었다.

올해 투자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53.9%에 달했고 '미국주식 기대'(20.3%), '이머징 주식 회복'(17.1%), '국내주식 회복'(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자산인 달러자산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자산 유형으로는 달러채권(32.3%), 달러현금(24.0%), 달러예금(18.4%) 등을 꼽았다. /김문호 기자

국내 넘어 해외로... 글로벌 역량 강화하는 저축은행

JT친애, 해외 계열사 간 물적 교류
웰컴·OK, 사회공헌 등으로 신뢰 ↑

저축은행 업계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적·인적 교류에 힘쓰는가 하면, 진출한 현지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등 우호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 인적·물적 교류로 글로벌 역량 강화

JT친애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둔 J트러스트 그룹은 인도네시아 상업은행인 'J트러스트뱅크'를 운영 중인데 이어, 캄보디아 'ANZ로얄 은행' 인수 절차를 올해 5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 계열사와 국내 계열사 간 물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워 나간다는 포석이다.

국내·외 계열사간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지난해 4월 국내 계열사의 우수사원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J트러스트뱅크' 본점을 찾아 현지 금융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특성 등을 습득했고, 올해 1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J트러스트 올림핀도' 임직원들이 한국을 찾아 국내 계열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기도 했다.



J트러스트 그룹의 인도네시아 계열사 J TRUST BANK의 모습(왼쪽)과 웰컴금융그룹이 필리핀 마닐라 소재 아동 센터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J트러스트 그룹의 인도네시아 계열사 J TRUST BANK의 모습(왼쪽)과 웰컴금융그룹이 필리핀 마닐라 소재 아동 센터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J트러스트그룹 관계자는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선 진출 시장의 현황과 더불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그룹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3년 세계저축은행협회(WSB I) 정회원인 DB저축은행은 유럽 및 동남아 저축은행과 업무제휴를 체결해 직원 연수와 사업 컨설팅 및 벤치마킹으로 협력 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소액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 '센트비'와 글로벌 금융네트워크 공유 및 해외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인도네시아 국립주택저

축은행(BNT)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시장조사 및 공동투자 방안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사회공헌으로 해외 시장 신뢰 쌓기도

웰컴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기업 이미지 메이킹에 힘쓰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방정환장학금'을 해외법인이 있는 필리핀으로까지 확장하며 2년째 현지 고객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진출한 라오스에 지난해 8월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현지 고용복지부에 복구 지원금 1만 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OK저축은행은 재일동포 3·4세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멘토링 프로젝트 '국민 글로벌 멘토링 사업'을 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OK저축은행의 'OK배정장학재단'은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해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 등 아세안 지역은 평균 경제성장률이 5%를 웃돌 만큼 세계적으로 성장과 변화가 주목 받고 있는 시장"이라며 "국내 저축은행이 현지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소비자금융 시장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작년 화폐제조비용 1104억 '역대 최소'

최근 현금 사용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화폐제조 비용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이어 '○○페이' 등 모바일 결제·뱅킹 서비스 사용이 일상화된 영향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폐와 동전 등 화폐 제조에 들어간 비용은 총 1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집계된 총 비용인 1330억원에 비해 226억원(17%) 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6년 1539억원의 제조비용과 비교하면 2년 만에 435억원(28%)이 감소했다.

지난해 화폐 발행추이를 보면, 5만원권 발행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하고 1만원권 발행액은 20.4% 감소했다. 이어 5000원권은 -14.2%, 1000원권은 -13.7%로 모두 2008년 이래 가장 많이 줄었다. /홍민영 기자

가정의날·PC오프제... 저축은행도 '워라벨' 열풍

웰컴·SBI·JT친애저축은행 등
일-가정의 양립 중요성 확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시중은행을 넘어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미지가 강했던 금융사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는 것.

6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야근이나 회식 없이 무조건 '칼퇴'를 하는 날이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

다. 또한 모든 직원은 연차와 같은 휴가를 쓸 때 사유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 남은 휴가를 쓸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근무시간제 조정의 일환으로 'PC오프제'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의 퇴근 시간인 6시가 되면 업무용 PC 모니터에 '10분 뒤 PC가 꺼질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근무 시간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후 각 부서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회식 문화도 점차 바뀌고 있다.

SBI 저축은행은 각 부서별로 점심 회

식을 대폭 늘렸다. 회사에서 업무가 끝난 뒤에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특히나 3년 전부터는 저녁 회식 자리에 '119법칙'을 도입했다. '1차로 한 자리에서 9시까지 회식을 끝낸다'는 것이 법칙의 골자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직원을 중시하는 근무 환경과 제도가 잘 자리잡혀 있기 때문에 공채로 입사한 직원들 중에서는 한 명도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보수적인 분위기상 활용되지 못했던 육아휴직 제도가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점도 눈길을 끈다.

웰컴저축은행은 남·여 직원에 상관없

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휴직 기간을 개별별로 나눠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장점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창사 이래 6년 동안 누적된 육아휴직 신청자가 전체 사원수 600여명 중 105명으로 17%에 달한다. 그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5명, 여성 육아휴직자는 80명으로 각각 23%, 77% 정도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외국계 금융회사여서 육아휴직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크고, 타 금융사보다도 그런 면에서 포용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했다.

또한 자녀의 나이가 어리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 내 사유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경우, 직원들은 자녀의 나이에 상관 없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휴직 후 회사에 복직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을 주지 않아 업무 적응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홍민영 기자